논어 6편 옹야 12장 · 원문·풀이

子游爲武城宰。子曰：「女得人焉耳乎？」曰：「有澹臺滅明者，行不由徑；非公事，未嘗至於偃之室也。」

독음 · 자유위무성재 자왈 여득인언이호 왈 유담대멸명자 행불유경 비공사 미상지어언지실야

쉬운 풀이(요약) · 자유는 무성을 다스리며 지름길로 다니지 않고 공적인 일이 아니면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담대멸명을 좋은 인물로 꼽았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子 아들 자 / 游 헤엄칠 유 유 / 爲 할 위 / 武 굳셀 무 무

城 보루 성 성 / 宰 주관할 재 재 / 曰 가로 왈 / 女 계집 녀 여

得 얻을 득 득 / 人 사람 인 / 焉 어찌 언 언 / 耳 귀 이 이

乎 어조사 호 / 有 있을 유 / 澹 맑을 담 담 / 臺 능 대 대

滅 멸망할 멸 멸 / 明 밝을 명 명 / 者 놈 자 / 行 다닐 행 행

不 아닐 불 / 由 말미암을 유 유 / 徑 지름길 경 경 / 非 아닐 비 비

公 공변될 공 공 / 事 일 사 사 / 未 아닐 미 미 / 嘗 맛볼 상 상

至 이를 지 지 /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 偃 자빠질 언 언 / 之 갈 지

室 집 실 실 / 也 어조사 야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